

# 익산시 '신산업 메카' 부상

### 국내 1위 수소연료전지 기업 유치, 단계별 1100억원 투자 지역경제 파급효과 상당,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효과

익산시가 신산업 분야 대기업 유치가 잇따라 성공하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익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국내 최고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 두산퓨얼셀(주)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수소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산퓨얼셀(주)과 관련된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익산이 수소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

로 기대된다. 시는 두산퓨얼셀(주)에 이어 이미 지역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산업 분야 대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주), IC화학 등과 함께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할 방침이다. 두산퓨얼셀(주)은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누적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지난해 연매출 4천600억원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퓨얼셀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성장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최근 익산 제2공단 2만8천452㎡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574억원을 투자한 후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 총 1천100억원까지 투자를 고려하면서 지역에 대대적인 연료전지 산업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주)는 첨단 부품소재 생산하는 업체로 제2공단에서 신산업인 모바일 소재와 융복합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가 선유도 옥돌해변인근에 한 슈퍼에서, 해변에 탁자와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영업을 한다는 민원인의 고발을 목살하고, 인일하게 대처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 선유도 무단점용 영업행위

### 군산시, 고발민원 인일한 대처 또 도마위에

군산시가 선유도 옥돌해변인근에 한 슈퍼에서, 해변에 탁자와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영업을 한다는 민원인의 고발을 목살하고, 인일하게 대처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군산시가 선유도 옥돌해변인근에 한 슈퍼에서, 해변에 탁자와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영업을 한다는 민원인의 고발을 목살하고, 인일하게 대처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담당 계장은 지난 주말경 현지에 나가 확인해 본 바, 포장된 삼겹살과 삼치, 갯잎, 고추 등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위반여부 조화중이며, 위 업소에서 정육판매행위의 위반여부 또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고발인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도 없이 당사자에게 전화상으로 사실여부만 확인하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지 않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영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삼겹살만 판매하고 손님이 불판에 구워서 먹는 것은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현장점검없이 당사자의 변명만 듣고 불법행위가 없다고 고발민원을 목살하다가 늦깎이 처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대민행정 자세가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시 삼기면 '도시가스 공급' 에너지 복지 실현

익산 삼기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농간 격차 없는 에너지 복지 실현이 가능해졌다.

해 노력해준 익산시에 감사하며 정현을 익산시장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6월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에 걸친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마무리하고 삼기면 총 9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기면은 타 면지역에 비해 도심지역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량이 없어 값비싼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전북에너지서비스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도시가스 공급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16억원(도비 3억 4000, 시비 7억1000, 전북에너지서비스 5억5000)을 투입해 제3산업단지에서 삼기(도마, 검지, 옥실) 지역까지 도시가스 주 공급 배관망 총 4.2km 구간을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준공식을 준비한 삼기면 이장단은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

한 신속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재구 의장은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

### 산업부 신규사업 수립 국비 1억2500만원 확보

군산시는 산업부 신규사업인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초 지자체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립됐지만 최근 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한창이다.

전담기관인 시만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 서지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향상, 갈등예방을 위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만발전주식회사는 군산에너지네트워크, 넷제로(NET-ZERO)의 의미를 담은 군산에너지넷이라는 이름을 짓고 역할까지 확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한 제1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으로 지역의 현황 및 여건, 에너지생산 및 소비 현황 등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를 조사하고, 에너지원별 발전자원의 잠재량과 사업 타당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의 자료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 최초의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과 센터 시범사업은 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시민과 함께 구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최적화된 다양한 에너지 전환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은 시 재생에너지

/군산=한영봉 기자

## 군산대, 지역 총장협 구성·지역대학 위기 대응 회의

군산대학교는 6일 군산지역 총장협의회 구성 및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군산지역 소재 대학 간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산지역 총장협의회는 군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를 위해 회원교는 군산 소재 지역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대학 간 연구 및 교육, 산학협력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회원교는 군산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4개교이고, 회의에는 군산대 광병선 총장, 강상진 군산간호대학교 총장,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및 각 대학 기획처장, 실무협상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에서 발표

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학령인구의 급감 및 급변하는 산업과 사회에 대응하여 대학의 체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위한 대학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목표는 ▲자율 혁신이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개방 및 공유, 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거리두기 개편 '특별 방역점검' 실시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식품위생업소 4천983곳에 대한 방역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며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지난 1일~14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에 8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9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기본 방역수칙인 출입자 명부 작성, 일일 점검대장 작성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익산시의회, 중앙동 집중 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지난 5일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시장 및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지역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전북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내린 비로 익산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상가 건물에 상당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과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은 6일 오전 긴급히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

주민들은 "하루 동안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일어나 장마가 시작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어 걱정이다"며, 하수도 정비, 피해복구 인력지원, 긴급 재난지원 등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재구 의장은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